

Muhammad bin Salman(MbS) 왕세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새로운 시대의 개막

I. MbS 왕세자는 누구인가?	1
II. MbS 시대의 출발점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상황	5
III. MbS 시대의 경제·사회 개혁 : 새로운 국가의 지향	11
IV. MbS 시대의 정치적 지각변동 : 권력 장악을 위한 숙청	24
V. MbS 시대의 외교적 격변 : 이란과의 전면 대결	27
VI. MbS 선장의 사우디號 : 향후 전망과 시사점	32

확인 : 소 장 권우석 (3779-5701)
wskwo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l122@koreaexim.go.kr

요 약

I. MbS 왕세자는 누구인가?

- Salman 국왕, 2015년 1월 즉위 후 왕위계승자 전격 교체
 - 자신의 아들 Muhammad bin Salman(MbS) 왕자를 부왕세자로 책봉
- MbS 부왕세자, 친위 내각 구축 추진에 이어 2017년 6월 왕세자로 책봉
 - 국방장관, 제1부총리, 양대 국왕 자문단인 경제개발이사회(CEDA)와 정치안보이사회(CPSA) 의장 겸직

II. MbS 시대의 출발점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상황

- 유가 폭락은 원유시장 지배를 꿈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승자박의 결과
 - 원유시장 장악을 위한 치킨 게임의 실패로 경제 전반 악화: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적자 전환, 경상수지 악화의 동시 발생
 - 감산 합의 및 재연장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 전망은 불투명
- 산유국 특유의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 지속
 - 과도한 석유의존도와 공공 부문 비중 등 경제구조의 취약성 심각
- 종교적 엄숙주의로 사회변화 정체, 역내 외교적 입지 위축
 - 이슬람 근본주의로 사회의 활력과 추진력 상실, 이란의 국제사회 컴백 등

III. MbS 시대의 경제·사회 개혁 : 새로운 국가의 지향

-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 의 추진
 - 경제 부문 핵심은 Aramco의 개혁과 비석유 부문의 육성 및 세입 증대 :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 국가개혁 프로그램, 재정균형 프로그램 추진
 - 공공투자기금(PIF)의 Saudi GIGA Project 추진 : 엔터테인먼트 시티 건설,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 미래도시 건설 등
- “온건 이슬람”을 지향하는 사회개혁 추진
 - “즐거움이 있는 사회”의 지향, 여성 인권의 신장 조치

요 약

IV. MbS 시대의 정치적 지각변동 : 권력 장악을 위한 숙청

□ “왕자의 난”(亂): 11명의 왕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숙청

- MbS 왕세자 주도의 반부패위원회, 11월 4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11명의 왕자와 전·현직 장관 등을 체포·연금

□ 부패 청산의 이면은 MbS 왕세자의 경쟁자 및 반대세력 제거

- 숙청의 목적은 MbS 왕세자의 왕위계승을 위한 경쟁자 제거 : 개혁 추진과 더불어 왕실 내 숙청 계속 전망

V. MbS 시대의 외교적 격변 : 이란과의 전면 대결

□ 역대 숙적인 이란과는 2016년 1월 단교 후 갈등을 거듭하며 관계 악화 일로

-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레바논 총리 사임 발표 등 역대 분쟁 및 혼란마다 양국 간의 대립이 거듭되어 역대 불안정 고조

□ 카타르 단교 사태 역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MbS의 외교전략

□ 對이란 견제를 목적으로 예멘 내전에 적극 개입, 민간인 희생으로 비판 자초

VI. MbS 선장의 사우디號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불확실성 고조, 불안과 기대 교차

- MbS 주도의 개혁의 성패는 “Saudi Vision 2030”에 필요한 자원과 추진동력 확보 및 보수파 통제 여부에 의해 좌우될 전망

□ 이란과의 대립 지속으로 역대 긴장 고조 우려

- 예멘 내전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심화 우려

□ “Saudi Vision 2030”의 추진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회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프로젝트에 응찰하는 외국 기업에게 자금조달 동반을 요구할 전망: 당행의 역할 증대 예상

□ “왕자의 난” 후유증과 예멘 내전 등으로 인한 드러난 국내외적 리스크 증가에 주의 필요

I. Muhammad bin Salman(약칭 MbS) 왕세자는 누구인가? : 백마 아닌 백낙타를 탄 신임 왕세자의 프로필

1. MbS의 등장과 급속한 부상

□ 사우디아라비아 Salman 국왕, 2015년 즉위 후 왕위계승자 교체

- 2015년 1월 제6대 Abdullah 국왕의 사망에 따라 제7대 국왕으로 즉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Salman 국왕은 즉위 연설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이전부터 前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즉위 당시 국정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즉위 3개월 후인 2015년 4월 29일 칙령을 내려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왕위 계승서열 제1위인 Muqrin bin Abdulaziz 왕세제(王世弟)를 폐위하고, 대신 조카인 Muhammad bin Nayef 왕자(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를 왕세자로 책봉하였음.
 - Muhammad bin Nayef 왕자는 Salman 국왕의 친형인 Nayef 前왕세제(제1부총리 역임, 2012년 6월 사망)의 차남임.
- 동시에 Salman 국왕은 자신의 아들인 Muhammad bin Salman(이하 MbS로 약칭) 왕자를 부왕세자(왕위 계승서열 제2위)로 책봉하고 제2부총리 겸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당시 만 29세의 MbS 왕자는 전 세계에서 최연소 국방장관이 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초대 AbdulAziz 국왕이 형제 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제2대 Saud 국왕부터 현 Salman 국왕까지 모두 초대 Abdulaziz 국왕의 아들들이었음. 따라서 Salman 국왕의 왕위계승자 교체(조카를 왕세자, 아들을 부왕세자로 책봉)는 형제 상속의 원칙을 폐지한 것임.
 - AbdulAziz 국왕은 부자 상속시 맏손자가 왕위에 오르면 수많은 숙부들(즉 자신의 많은 아들들)이 조카인 국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형제 상속을 원칙으로 정하였음.
- 아울러 Salman 국왕은 즉위와 더불어 수차례에 걸쳐 개각 또는 장관직 교체를 단행하여, 선왕인 Abdullah 국왕 재위시의 장관들 중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인물들은 정부 내에서 중요성이 낮은 여러 명의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들 중 4명이 전부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회와 정당이 없는 대신, 국왕이 임명하는 국정자문위원회(150명)가 운영됨. 핵심 부처의 장관직은 대부분 왕실의 왕자들이 맡으며 4년마다 재·연임하는 형식이나, 이전까지는 평생직과 같은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었음.
- 또한 Salman 국왕은 즉위 직후 양대 국왕 자문단인 **경제개발이사회(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약칭 CEDA)**와 **정치안보이사회(Council of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약칭 CPSA)**를 설립하고, MbS 부왕세자를 양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여 전권을 부여하였음.

**경제개발이사회(CEDA)와
정치안보이사회(CPSA)**

□ **경제개발이사회(CEDA)**

- 기존의 최고경제이사회(Supreme Economic Council)를 대체하여 설립됨. 왕세자가 의장직을 수행하며, 현재 **MbS 왕세자가 의장임.**
- CEDA는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연례 회의를** 소집하여 지난 1년 간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갖고 경제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
- CEDA는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의 확립은 물론, 경제·사회 종합개발계획인 “Saudi Vision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메커니즘 및 수단 **의 개발과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CEDA 위원들은 경제계획부, 재무부, 석유광물자원부(舊석유부), 수전력부, 노동사회개발부, 상무투자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물론 법무부, 국무부, 교통부, 주택부, 정보통신부, 보건부, 환경부, 문화부, 교육부, 공공서비스부, Hajj(성지순례) 담당부, 도시전원부 장관들까지 망라하여 **사실상 국무회의 수준임.**

□ **정치안보이사회(CPSA)**

- 기존의 국가안보이사회(National Security Council)를 대체하여 설립됨. 왕세자가 의장직을 수행하며, 현재 **MbS 왕세자(국방장관 겸임)가 의장임.**
- CPSA 위원들은 정보기관장 및 관련 부서(외무부, 내무부, 국가수비대 등) 장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국왕의 칙령에 의해 임명됨.

□ MbS 부왕세자,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친위 내각 구축 추진에 이어 왕세자로 책봉

- MbS 부왕세자는 2016년 4월 CEDA 의장인 자신의 주도하에 수립된 경제·사회 종합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1995년부터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부 장관을 Aramco 회장인 Khalid al-Falih로 교체하는 한편, 석유부의 명칭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로 변경하였음.
- MbS 부왕세자는 전통적으로 비(非)왕족 출신의 전문 관료들이 역임해온 석유정책 담당 장관직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인 al-Falih를 임명하여, 전권 장악을 위해 석유 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Salman 국왕은 칙령을 통해 석유정책의 구상 및 추진 권한도 기존의 석유위원회에서 CEDA로 이관하여, CED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경제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음.
- 또한 MbS 부왕세자는 중앙은행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총재도 Fahad al-Mubarak에서 前 SAMA 연구 및 국제문제 부총재인 Ahmed al-Kholifey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친위 내각 구축의 추진에 나섰음.
- 이듬해인 2017년 6월 21일, Salman 국왕은 칙령을 내려 왕위계승자 교체 2년 만에 Muhammad bin Nayef 왕세자를 전격 폐위하는 한편, MbS 부왕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였음.

2. MbS 프로필 : 출생 및 가족관계, 현 직위

□ 국왕의 세 번째 부인의 장남으로 출생

- Muhamma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¹⁾ 왕세자는 1985년 8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의 Jeddah에서 아버지 Salman bin Abdulaziz Al Saud(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당시는 왕자이며 Riyadh 주 지사)와 어머니 Fahda bint Falah bin Sultan Al Hathlyn(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음.

1) 아랍어에서 남자 이름의 bin, 여자 이름의 bint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 ⇨ bin Salman bin Abdulaziz는 (초대 국왕) Abdulaziz의 아들인 (현 국왕) Salman의 아들이라는 뜻: “Salman의 아들이자 Abdulaziz의 손자”.

○ 수도 Riyadh의 King Saud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왕실의 일원인 Sarah bint Mashhoor bin Abdulaziz Al Saud 공주와 결혼하여 2017년 12월 현재 슬하에 3자녀를 두고 있음.

—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유학하였으나, 현재 젊은 세대의 왕자들은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임.

— MbS 왕세자는 왕실의 다른 남자들과 달리 일부다처제를 배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부인도 (최소한 현재까지는) 현 부인이 유일함.

□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에 이어 제1부총리 겸 왕세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군주

○ 2015년 1월 23일 부왕세자로 책봉되는 동시에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세계 최연소 장관이 되었으며 (당시 만 29세) 동년 4월 29일 제2부총리에 임명되었음.

○ 2년 뒤인 2017년 6월 21일 사촌형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가 Salman 국왕의 명으로 강제 퇴위되면서 신임 왕세자에 책봉되고 동시에 제1부총리에 임명되어, 현재 왕위계승 서열 1위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총리를 겸직하여, 현재 Salman 국왕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가문이자 국왕 자신의 외가인 Sudairi 가문 출신인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5명의 왕자들 중 3명이 현재 생존해 있음에도, 셋째 부인과의 사이에 얻은 아들이자 아직 젊은 MbS 왕자를 왕세자로 책봉한 것은 그에 대한 Salman 국왕의 총애와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 MbS 왕세자는 Salman 국왕의 생존한 아들들 중 가장 연장자인 Sultan 왕자(1956년생)보다 29년이나 연하임.

○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은 MbS 왕세자의 주도에 의해 입안되거나 그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미 국내외에서 사실상의 국왕으로 간주되고 있음.

II. MbS 시대의 출발점 :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상황

1. 유가 폭락: 원유시장 지배를 꿈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승자박

□ 원유시장 장악을 위한 치킨 게임의 실패로 경제 전반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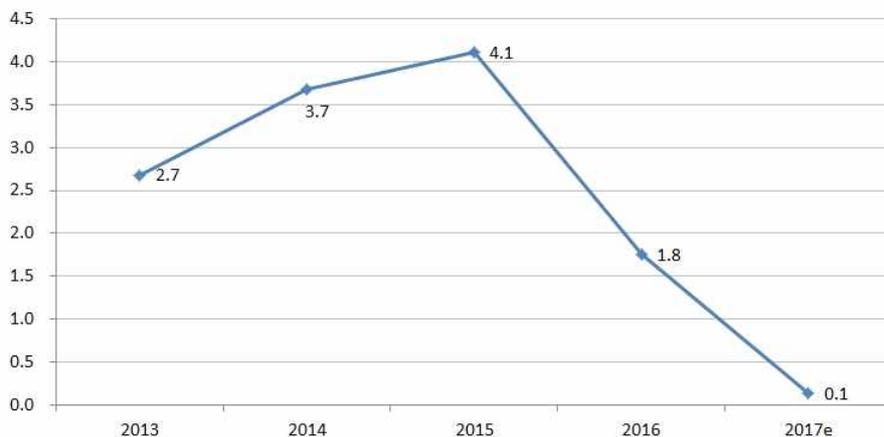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4년 11월 원유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OPEC 내의 증산을 주도하였음. 그러나 증산에 따른 유가 폭락은 원유수출액 감소로 이어졌음.
 - 증산의 목적은 당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의 국제 원유시장에서 치킨게임을 강행하여 유가 폭락을 야기, 고비용 생산자들(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시장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음.
- 원유수출에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수출액 감소는 재정수지와 상품수지의 동반 악화 및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장애물이 되어 소비와 투자자의 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았음.

□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적자 전환, 경상수지 악화의 동시 발생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건설 부문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 연기/취소 등이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동반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률은 2015년 4.1%에서 2017년 0.1%로 급속히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2013~17년)

단위: %



자료: IMF

○ 재정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0%의 흑자에서 2014년 -3.4%로 적자 전환한 뒤 2015년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국방비 증가로 -15.8%로 급속히 악화되었음. 2016년에는 재정지출을 전년대비 15.6% 축소하였음에도 동 비중이 26년 만의 최고 수준인 -17.2%를 기록하였음.

— 정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 보조금 삭감, 정부사업 취소 등을 단행한 데 이어 2016년 9월 공무원 상여금 지급 취소, 장관 월급 20% 삭감을 발표함.

<그림 2>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5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추이 (2013~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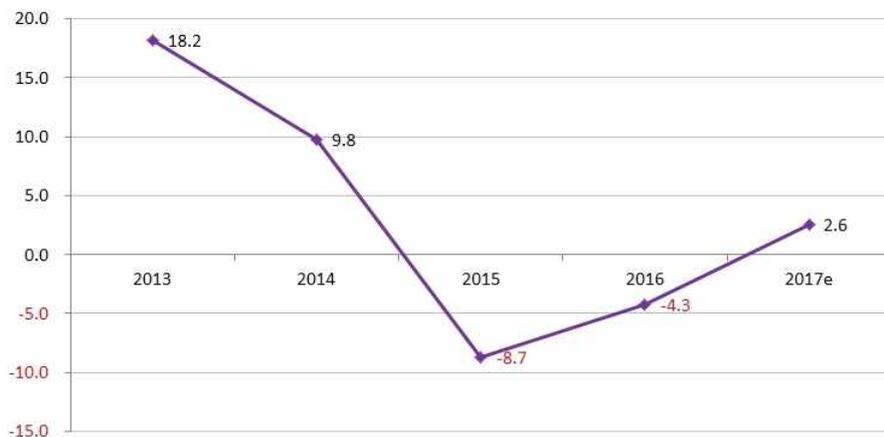


자료: IMF

○ 경상수지도 2014년부터 저유가 추세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8.7%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4.3%의 적자로 2년 연속 쌍둥이 적자를 시현하였음.

<그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5년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추이 (2013~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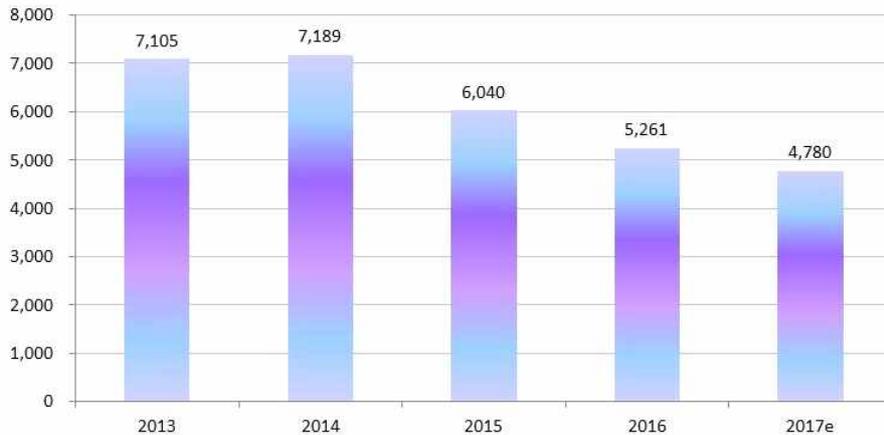


자료: IMF, EIU

-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던 외환보유고도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5년간 외환보유고 추이 (2013~17년)

단위: 억 달러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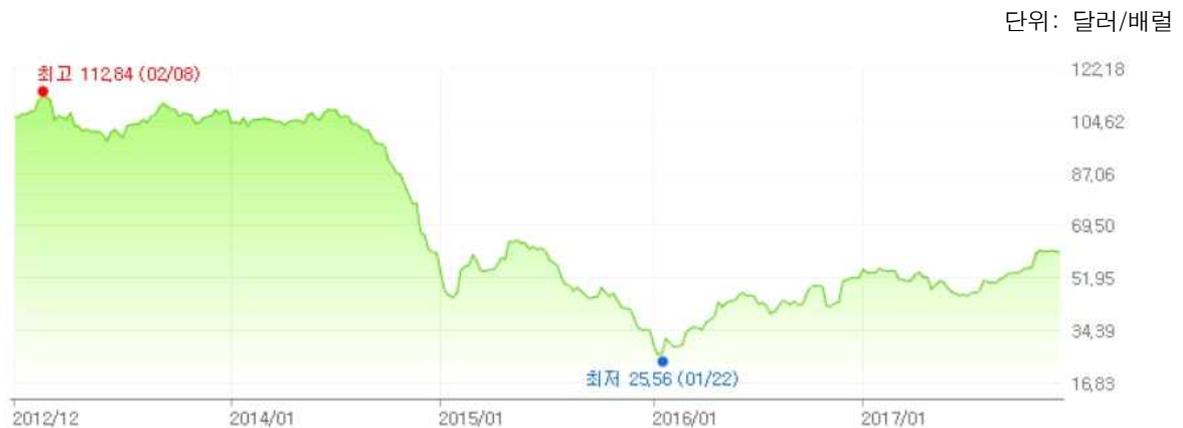
□ 감산 합의 및 재연장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 전망은 불투명

-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저유가 지속의 상황을 타파코자 2016년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간의 일일 평균 원유 총생산량을 10월 대비 약 120만 배럴 감축한 3,250만 배럴로 정하는 감산에 합의하였음.
 - 감산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1,005.8만 배럴로 종전 대비 48.6만 배럴 감소하였음.
- 이어 12월 10일에는 OPEC 비회원 산유국들²⁾도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간의 일일 평균 원유 총생산량을 55.8만 배럴 줄이는 감산에 합의하였음.
- 감산 합의의 효과로 국제유가는 2017년 2월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4달러대(이하 종가 기준)로 상승하였으나, 5월 말 OPEC의 감산 9개월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산 준수 여부에 대한 회의적 관측,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고조 등으로 인해 7월 7일 45.88달러로까지 하락하였음.

2)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적도기니, 수단, 남수단, 브루나이.

- 6월 말 이후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017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요인으로 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며, 8월 중순 이후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11월 6일 최근 2년 중 최고치인 61.83달러까지 상승(12월 11일 61.62달러)하였음.
- 이처럼 감산 이후 유가수준이 40달러대 중반에서 60달러대 초반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당초 산유국들이 기대한 60달러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음.

<그림 5> 최근 5년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일종가 기준



자료: NYMEX (2017.12.14자)

- 산유국들이 11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감산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는 합의에 성공하였음에도 유가수준은 여전히 65달러 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 가능성,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생산량 증대 등의 변수들도 존재함.
- OPEC 비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 생산단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감산 조기 종료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짐.

2. 산유국 특유의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한 문제 지속

□ 과도한 석유의존도와 공공 부문 비중 등 경제구조의 취약성 심각

-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석유 부문은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의 40% 이상, 재정수입의 80% 이상 및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경제가 국영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민간 부문의 발전이 부진하며, 따라서 총고용에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 다국적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인구의 약 70%가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 중임.
 - 이처럼 고용에서의 비중이 높음에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 10월 Khalid bin Abdullah al-Araj 행정장관은 자국 공무원의 대다수가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정부는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영기업 및 정부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의 정책성과는 당초 목표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17. 3. 22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한 Fitch는 정부 재정과 대외수지의 지속적 악화에 더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다양화 개혁 의지가 미미한 점”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였음.

3. 종교적 엄숙주의로 사회변화 정체, 역내 외교적 입지 위축

□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엄숙주의 사회 : 활력과 추진력의 상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수니파 내의 여러 학파들 중 가장 교조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와하비 학파(Wahabism)을 국시(國是)로 삼는 신정일치(神政一致) 국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와하비 성직자들은 엄격한 파트와(fatwa)³⁾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의 세부까지 통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여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일상적인 오락이나 문화활동조차 금기시되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엄숙주의적 사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

3) 이슬람 세계의 법률용어로, 율법학자들이 쿠란(이슬람교 경전)과 하디즈(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를 비롯한 이슬람 세계의 법원(法源)을 바탕으로 내리는 법적 해석을 의미함.

— 와하비즘에 의하면 음악과 미술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죄악시되며, 영화는 인간의 형상을 스크린에 비추는 것이므로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여 역시 죄악시됨.

○ 또한 여성은 가족 중의 성인 남성(아버지, 오빠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에 제약이 있고, 국내외 여행도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동차 운전이 관습적으로 금지되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억압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준으로 분류됨.

○ 이처럼 교조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교리 해석에 바탕을 둔 억압적인 통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전반이 활력과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동에서의 지도력에 위기 : 이란의 국제사회 컴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등

○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고립되어 왔던 이란은 2013년 11월 P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 독일)과의 핵협상에 이어 2015년 4월 핵협상의 포괄적 타결이 이루어져 2016년 1월 16일부로 경제제재 해제가 개시되었음.

○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로 세계 원유시장에의 복귀, 그간 거의 중단되었던 외국인투자 유치의 본격 재개 등을 통해 다시금 중동 지역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이라크의 IS(이슬람국가) 격퇴전과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음.

— 이는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며 특히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공화정 수립 이후 걸프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고 이란과 양측 관계에 놓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한편, IS(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파괴활동을 펼쳐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역내 최강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왕정(王政) 전복 및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신정국가 수립을 추구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역내 왕정 국가들에게는 특히 위협적인 존재들임.

III. MbS 시대의 경제·사회 개혁 : 새로운 국가의 지향

1. MbS, 2016년 “Saudi Vision 2030” 선포

□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의 추진

- MbS 왕세자(당시는 부왕세자)는 2016년 4월 25일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야심적인 종합사회개발계획인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 Salman 국왕의 즉위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개발전략의 수정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장기전략 2024”(Long-Term Strategy 2024) 및 그에 기초한 5개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이 요구되었음.
- “Saudi Vision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의 총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 ‘활기찬 사회’는 (1) 뿌리가 강한 사회(종교), (2) 성취감 있는 삶을 가진 사회(문화·체육), (3) 기반이 튼튼한 사회(주거·교육·보건의료)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성지순례객 수용능력 증대(800만 명 → 3,000만 명), 가계의 문화오락 활동비 지출 비율 제고(2.9% → 6.0%), 평균 기대수명 연장(74세 → 80세) 등을 추진함.
- ‘번영하는 경제’는 (1)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육성), (2) 장기적 투자(민간·신성장 부문의 육성), (3) 사업환경 개선(경쟁력 제고), (4) 지정학적 장점 활용 극대화(무역·투자 증진)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실업률 하락(11.6% → 7%),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제고(20% → 35%), 총고용의 여성 비중 제고(22% → 30%),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율 제고(40% → 75%), 공공투자기금(PIF)의 자산규모 증대(6,000억 리얄 → 7조 리얄) 등을 추진함.
 -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제고(3.8% → 5.7%),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40% → 65%),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대비 비중 제고(16% → 50%) 등도 추진함.

- ‘진취적인 국가’는 (1) 효과적 통치체제, (2)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비석유 재정수입 증대(1,630억 리얄 → 1조 리얄), 가계소득 대비 저축 비율 제고(6% → 10%), 비영리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1% 이하 → 5%) 등을 추진함.
- “Saudi Vision 2030”은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최고위층의 인식의 발로로 평가됨.
 - 다만, 개혁을 추진할 정부 부처의 역량 부족, 보조금에 의존적인 국민들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 기존의 보수 이슬람적 정치·사회 질서와의 조화 유지 등이 향후 비전 실현의 과제로 지적됨.

2. “Saudi Vision 2030”의 경제개혁 추진

□ “Saudi Vision 2030”의 경제 부문 핵심은 Aramco의 개혁과 비석유 부문의 육성 및 세입 증대

- 경제 부문에서 “Saudi Vision 2030”의 핵심은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조직과 역할의 전면적인 개편 및 기업공개(IPO)로 마련한 재원을 투자하여 비석유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Aramco 주식(5% 미만, 본사 및 자회사 포함)을 상장하고, 주식 매각자금 및 국가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양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공공투자기금(PIF)으로 이전하여 PIF의 자산규모(현재 약 1,600억 달러)를 약 2조 달러로 늘림으로써 투자수익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Aramco를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5% 수준인 PIF의 해외투자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PIF의 국내외 투자 수익, 재정개혁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부문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 3. 27자 발표된 칙령(Royal Decree)을 통해 석유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의 일괄 85%에서 기업의 자본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최고 50%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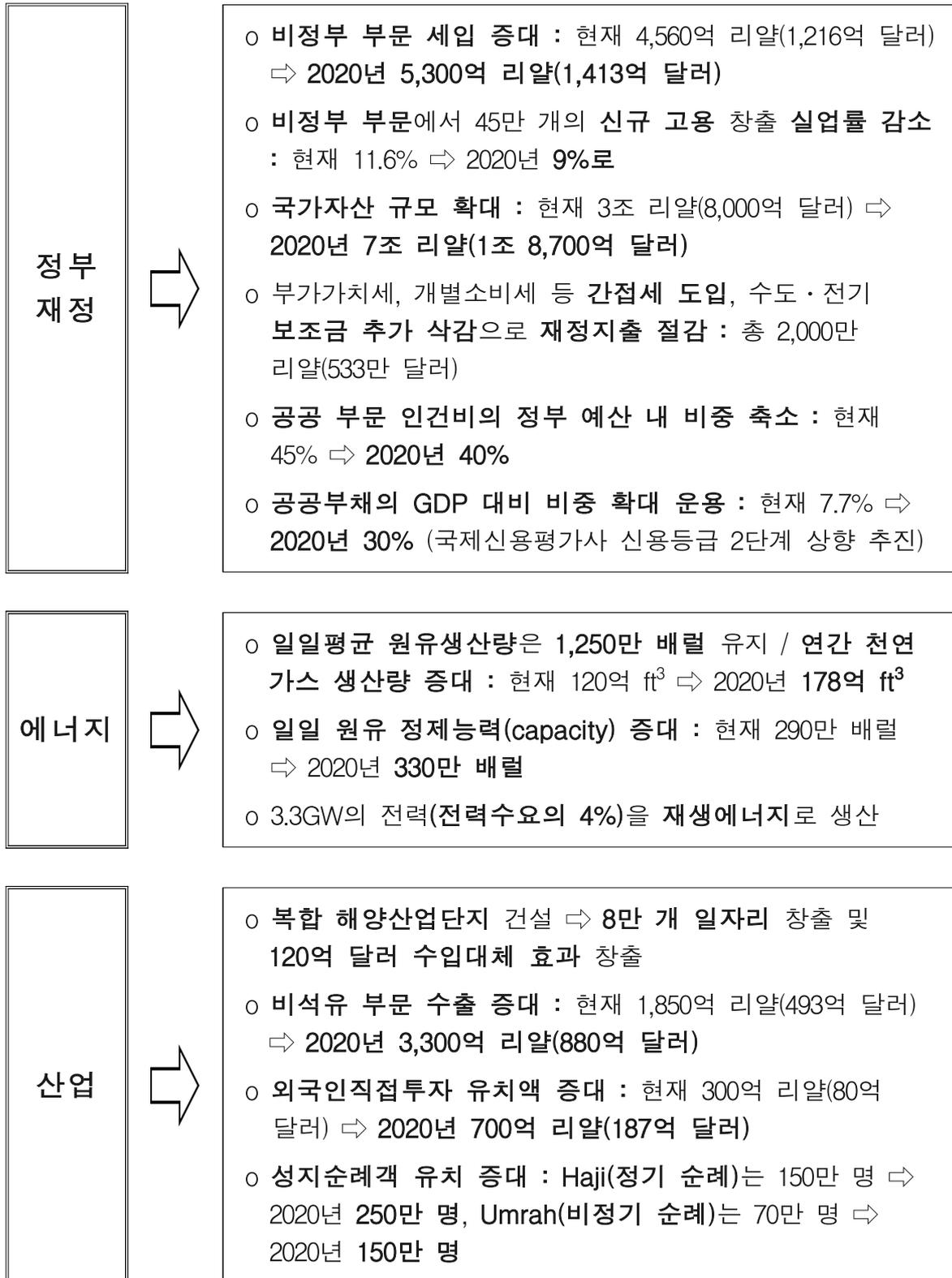
4) 자본금 600억 달러 미만 : 85% / 자본금 600억 달러 이상 800억 달러 미만 : 75% / 자본금 800억 달러 이상 1,000억 달러 미만 : 65% / 자본금 1,000억 달러 이상 : 50%

- Aramco는 동 조치로 법인세율이 85%에서 50%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300% 이상 상승하고, 잠재적 기업 가치가 최대 1.5조 달러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됨.
- 투자업계는 동 조치에 대해 IPO를 추진 중인 Aramco의 기업가치 상승과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노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승부수로 평가하였음.
- 그동안 Aramco는 총 매출의 20%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이익의 8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왕가 로열티는 이번 감세 조치와는 무관하게 지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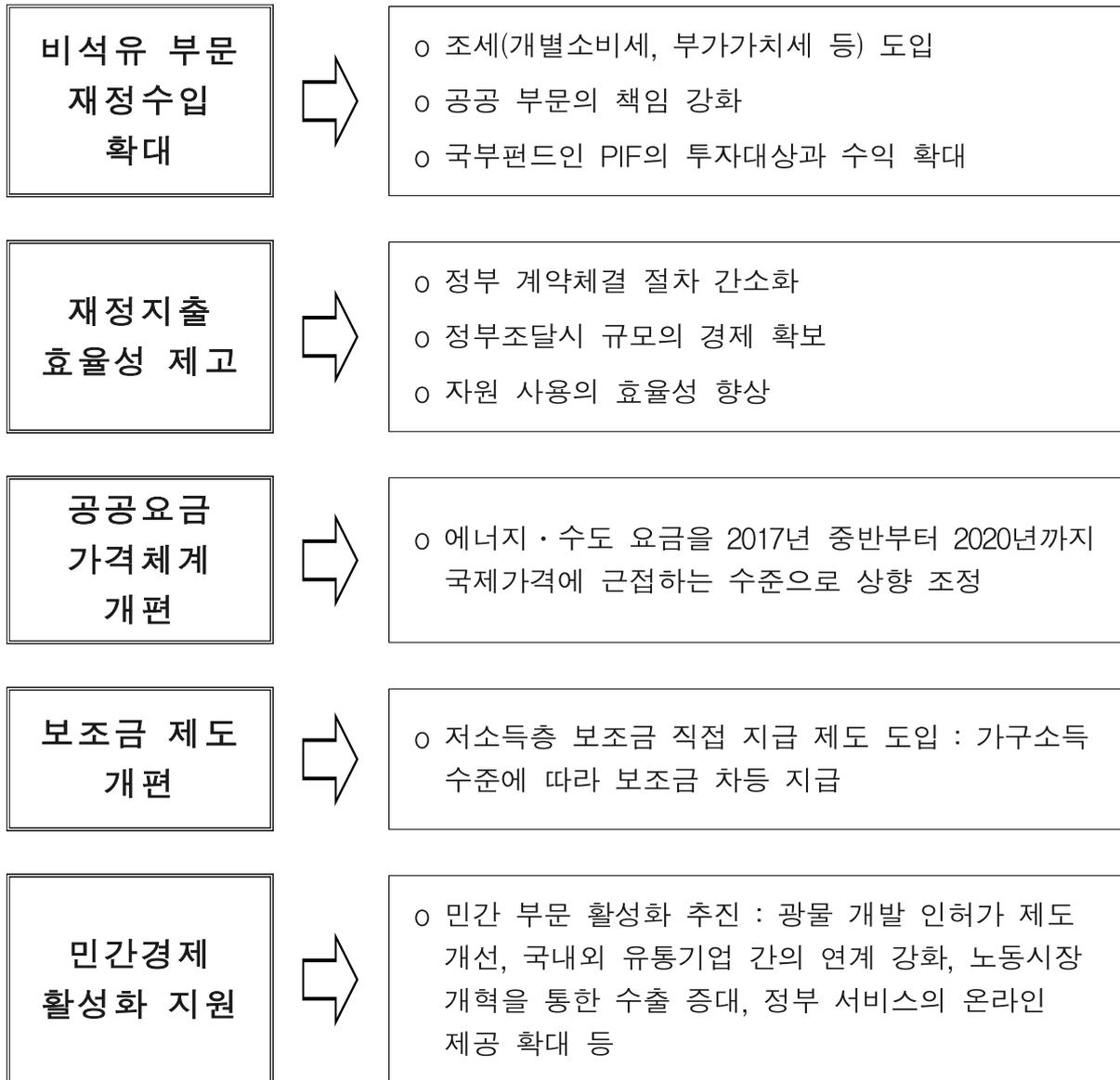
□ 국가개혁 프로그램(NTP 2020)과 재정균형 프로그램(FBP 2020)

- 2016년 6월 내각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약칭 NTP 2020)은 총 24개 기관에서 총 178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71개 지표 및 346개 실행목표를 각각 설정하였음.
 - 24개 기관은 재무부, 경제기획부, 주택부 등 정부 부처 및 K.A.CARE(원자력, 재생에너지 담당) 등 기타 유관기관을 포괄하고 있음.
 - 추진 계획은 각 기관별 과제 확정 및 2020년 중간목표 설정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재정, 에너지, 산업 등 3개 분야의 개혁과제(Initiatives) 개발 ⇨ 개혁과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 확정 ⇨ 전략목표와 개혁과제 추진 결과 공개(정책 투명성 제고) ⇨ 정기적 평가, 재검토로 추진 현황 점검의 5단계로 구성됨.
- NTP 2020 발표로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12월 발표된 재정균형 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약칭 FBP 2020)은 저유가 기조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재정수입 확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로 2020년까지 국가재정 균형을 달성(또는 재정흑자 실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함.
 - FBP 2020의 기본 목표는 비석유 부문 재정수입 확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보조금 제도 개편,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이의 달성을 위해 신규 조세 도입, PIF의 투자대상 및 수익 확대, 정부 계약체결 절차 간소화, 에너지·수도 요금 인상, 저소득층 보조금 직접 지급제도 도입 등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선정함.

<그림 6> NTP 2020의 3개 분야 개혁과제의 주요 내용
(현재 : 2015/16회계년도)



<그림 7> FBP 2020의 세부 추진방안



□ “Saudi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 선정

- 경제개발이사회(CEDA)는 2017.4.30자로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해 NTP 2020 및 FBP 2020의 연장선에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음.
- CEDA 내 전문위원회가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CEDA가 10대 프로그램 및 실행계획의 이행에 대해서 2020년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임.

<그림 8>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의 내용

주택	⇒	각 가정의 수요와 재정 능력에 부합하는 주택을 소유토록 함으로써 품위 있는 삶을 제공
성지 순례객 지원	⇒	전 세계의 보다 많은 무슬림에게 성지 순례 수행(Haji, Umrah)과 성지(Two Holy Mosques)의 방문 기회 제공
생활방식 개선	⇒	문화, 오락, 스포츠 관련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향상의 수단을 현대화하여 개인 생활방식 개선
국가 정체성 강화	⇒	이슬람 및 국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국가 정체성을 개발·강화하여 개인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개인의 특성을 강화
기업의 국가 리더십 지원	⇒	역내 및 국제적 리더십 보유가 유망한 100개 이상의 기업에 동기부여를 통해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위로 격상되도록 지원
국가산업과 물류 서비스 개발	⇒	국가산업 및 현지 생산품 개발, 인프라 개선 및 물류 서비스 개발
공공투자기금	⇒	공공투자기금(PIF)의 역할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와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수립 및 심화
금융 부문 개발	⇒	자본시장 개발 및 역내/국제적 지위 개선
민영화	⇒	품질 향상, 가격 인하,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3. 공공투자기금(PIF)의 Saudi GIGA Project 추진

□ “Saudi Vision 2030”에서의 PIF의 역할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 PIF)은 1971년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투자 및 금융지원(대출, 보증)을 담당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SAMA Foreign Holdings와 PIF의 양대 국부펀드를 운용 중임. SWF Institute에 의하면 2017년 6월말 기준 자산규모는 SAMA Foreign Holdings 5,159억 달러(세계 5위) 및 PIF 2,239억 달러(세계 11위)로, 이는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2015년 3월 재무부 산하에서 CEDA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CEDA 의장인 MbS 왕세자가 PIF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음.
 - PIF는 200여개 프로젝트와 주요 공기업(SABIC, STC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20여개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 PIF는 CEDA 산하로 이관된 이후 “Saudi Vision 2030”의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 외의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Saudi Vision 2030” 실현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은 PIF의 역할 강화를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음.
 - 이에 PIF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개발과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투자주체로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분야를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Saudi GIGA Project: PIF의 2018~20년 집중 투자대상

- PIF는 2017년 4월 발표된 Qiddiya 프로젝트, 8월 발표된 Red Sea 프로젝트, 10월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forum에서 발표한 NEOM 프로젝트를 2018~20년 중의 집중 투자대상인 Saudi GIGA Project로 선정하였음.
 - 상기 3개 프로젝트 모두 MbS 왕세자가 PIF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직접 발표하였으며, 투자주체는 정부가 아닌 PIF임.

1) Qiddiya 프로젝트 : 엔터테인먼트 시티 건설

○ Qiddiya 프로젝트는 수도 Riyadh 남서부 약 40km 지점(Riyadh의 King Khalid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악지대인 Qiddiya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경제다각화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엔터테인먼트 관련 외국으로의 국부 유출 방지, 신규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약 334km²의 개발면적에 테마파크, 자동차 경주장, 스포츠 도시, 문화 공연장, 자연경관 및 야생활동 체험장 등이 건설되며, 재래시장 및 아울렛, 음식점, 병원, 거주민 별장 등도 들어설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임.

1단계(2017년 말까지) : 사업전략 채택 및 사업팀 구성

2단계(2017.4. ~ 2017.10.) : 기술적·상업적 예비조사, 기초 종합계획 설계, 규제체계 마련, 기구조직 마련, 통신수단 구축, 홍보 및 마케팅, 투자자 및 자금조달 관련 전략 수립

3단계(2017.11. ~ 2018.3.) : 세부 종합계획 마련, 체험장 및 방문객 센터, 시물레이션 스튜디오 건설

4단계(2018.4. ~ 2022.9.) : 엔터테인먼트 지구, 스포츠 지구, 자동차 및 자전거 경주장, 사파리, 물놀이장(watger park), 눈놀이장(snow park), 예술 및 문화단지, 소매 및 의료서비스 센터 디자인 및 건설

5단계(2022.10. ~) : 엔터테인먼트 시티 공식 개장, 놀이공원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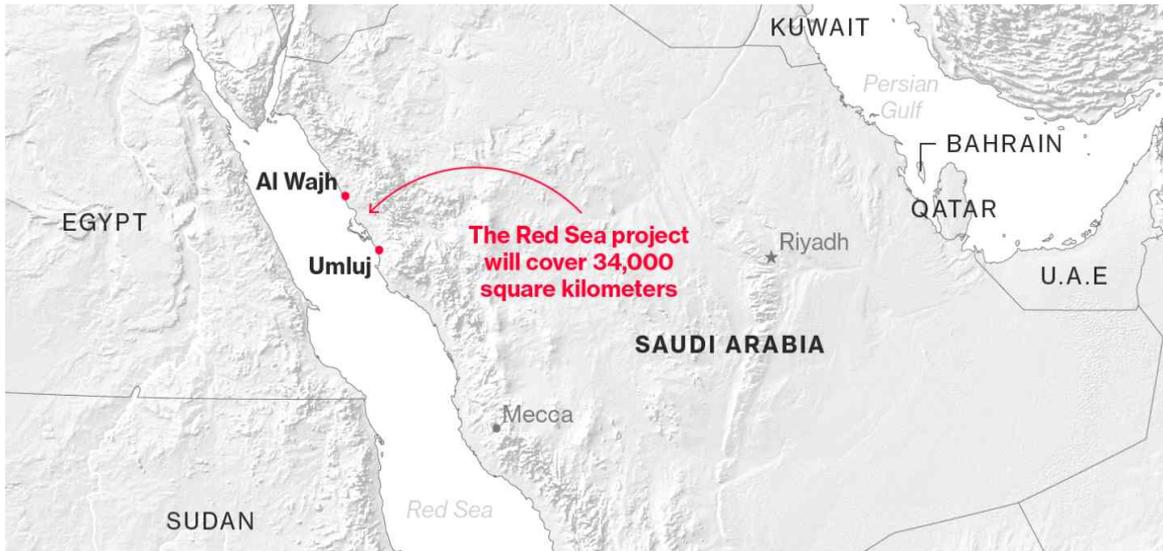
○ 동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는 2030년에 연간 엔터테인먼트 고객 1,700만 명, 쇼핑객 1,200만 명, 의료서비스 고객 200만 명 유치이며, 2030년까지 57,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GDP에 170억 리얄(약 45억 달러) 상당의 기여도 기대하고 있음.

2) Red Sea(홍해) 프로젝트 :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

○ Red Sea 프로젝트는 홍해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Umluj와 Al-Wajh 사이의 해변과 50여개의 섬 지역에 호화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 동 지역은 홍해의 해변과 산호초 지역, 다양한 해양생물(바다거북 등)과 육지 야생동물(아랍호랑이, 매, 늑대 등)의 자연 서식, 연중 온화한 기후, 휴화산의 존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Mada'in Saleh와 Al-'Ula에의 인접성 등으로 관광개발 잠재력이 높음.

<그림 9> Red Sea 프로젝트의 사업지역 지도



- 약 34,000km²의 개발면적에 관광단지를 건설하여 해변관광, 생태관광, 탐험관광, 문화·유적탐방, 웰빙관광의 5가지 분야별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생태관광, 수상스포츠, 일반스포츠, 오락, 문화, 교육, 의료 등 8가지 부문 130가지 활동도 제공할 계획임.
- 방문객 수는 환경 보호 및 지역유물 보존 등의 이유로 연간 방문인원을 제한하고, 국적별로는 자국민 포함 GCC 국가 시민권자 60%, 그 외의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40%로 할당할 계획임,
- 개발지역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존의 규제와 크게 상이하며, 비자 충족요건도 완화될 예정임. 무엇보다 동 관광단지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음주, 비키니 수영복 착용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행위도 허용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예상 방문객 수요 증가에 맞춰 총 2단계에 걸쳐 1단계는 2017~22년에, 2단계는 2022~35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 1단계 건설작업은 2019년 3분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공항, 항구, 호텔, 주거용 건물 및 기타 관련 인프라 시설이 포함됨.

- 동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는 2035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및 연간 GDP에 150억 리얄(약 40억 달러) 상당의 기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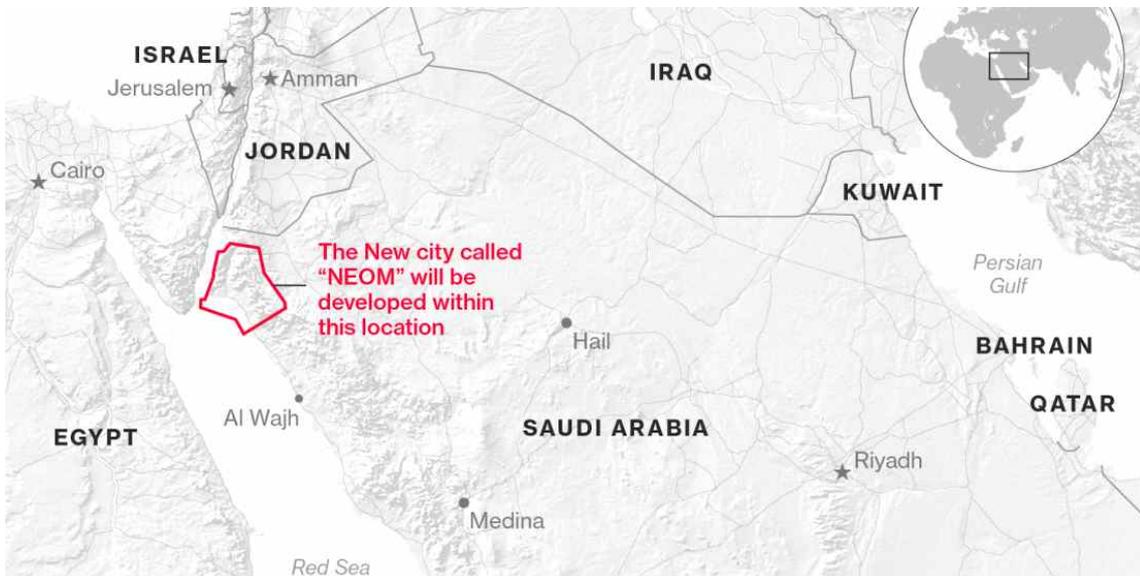
<표 1> Red Sea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구 분	1단계(2017~22년)	2단계(2023~35년)
수용능력(연간 방문객 수)	90,000명	1,000,000명
호텔 객실 수	2,000개	10,000개
주택 수	700호	8,000호
공항 이용객 수	500,000명	1,000,000명

3) NEOM 프로젝트 : 첨단 미래형 신도시 건설

- NEOM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와 아카바 만 사이에 서쪽으로는 468km 길이의 해안, 동쪽으로는 2,500m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동 지역은 아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의 합류지점으로, 세계 인구의 70%가 8시간 내로 이 장소에 도달 가능하다고 홍보되고 있음.
- 약 26,500km²의 개발면적에 모든 서비스와 업무과정의 자동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획득하고, 사람보다 많은 수의 로봇이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임.

<그림 10> NEOM 프로젝트의 사업지역 지도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풍부한 녹지 공간, 친환경 지속 가능성 획득, 직장업무와 삶 사이의 균형 잡힌 생활, 첨단 수준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행사 개최 등으로 세계 제1의 미래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핵심 경제분야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교통수단, 음식, 기술·전자과학, 첨단 제조기술, 생명공학,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및 매체 생산, 엔터테인먼트의 9대 핵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 1단계는 2019년 4분기에 일반 전략계획안을 발표하고 개발담당 기관 설립, 투자자 유치, 초기 종합계획 준비, 기초 인프라 사업 착수 등이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는 핵심 분야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4. “Saudi Vision 2030”의 사회개혁 추진 : “온건 이슬람”의 지향

□ “즐거움이 있는 사회”의 지향 : 엔터테인먼트청의 설립

- “Saudi Vision 2030”의 3대 영역 중 하나인 ‘활기찬 사회’는 ‘즐거움이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가계의 문화오락 활동비 지출 비율을 2016년 약 2.9%에서 2030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 동 목표의 추진을 위해 2017년 7월 MbS 왕세자의 주도로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청(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 GEA)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에 걸쳐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 Yanni의 콘서트를 주최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음.⁵⁾
 - 이 공연은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이래 85년 만에 최초의 대규모 서구 대중음악 공연이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는 와하비즘의 영향으로 음악, 공연 등 대중적 오락을 금기시해온 관계로 쿠란 낭송 대회 등 일부 종교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 공연을 불허하였으며,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로 외국 음악인들의 공연을 보러 원정을 가는 젊은층이 적지 않았음.

5) 11월 30일과 12월 1일 Jeddah의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12월 3~4일 수도 Riyadh의 Nourah bint Abdulrahman 여자대학교 강당, 12월 6~7일 Dhahran의 King AbdulAziz Center for World Culture에서 개최되었음.

- 또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그 여파가 자국에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모든 영화관들을 전면 폐쇄한 지 35년 만인 2018년 초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 계획임.

- 12월 11일 엔터테인먼트청은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영화관 수를 3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여성 인권의 신장 : 여성의 자동차 운전 허용 등 변화 시작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자 Abdullah 국왕 재위 당시부터 온건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최근 수년 간 서서히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대하였음.

- 2015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허용하였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외출시에 성인 남성 보호자(아버지, 남편 등)와 동행해야 하며, 국내외 여행에도 성인 남성 보호자의 동의 및 동반이 필요함. 여성은 심지어 성인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모르는 남성과의 대화도 금지됨.

- 공공장소 및 직장, 학교, 식당, 교통수단 등에서 엄격한 남녀 분리가 적용되며, 종교경찰(religious police)은 가족관계가 아닌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는지를 수시로 감시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Saudi Vision 2030”의 일부로 추진 중인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9월 26일 칙령을 통해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그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관습적으로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임.

- 외국인 여성 교관들이 교습을 담당하는 여성 전용 운전학원이 문을 열 계획이며, 이미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음.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에는 내년 6월 이후 차량 인도를 조건으로 승용차 구매에 대한 여성 고객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역시 관습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항공기 조종도 허용되어, Saudia 항공은 자국민 여성들을 조종사 후보생으로 채용하여 외국 항공 교육기관에 파견,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한편, 엔터테인먼트청 주최로 개최된 Yanni의 콘서트에서는 MbS 왕세자의 지시로 공연장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로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을 모두 입장시키는 파격을 단행하였음.
 - 남녀 관객석을 분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을 깨고 남녀 혼석이 허용되었음. 현지 언론은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하여 가족 단위 관객에 한해 혼석이 허용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는 혁명 수준의 변화임.
- MbS 왕세자의 사회개혁 추진으로 여성의 복장에 대한 종교경찰의 단속이 이전에 비해 느슨해지면서 공공장소에서 히잡(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두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파트와(fatwa) 작성에 여성의 참여 허용 등 파격적 개혁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의 의회에 해당하는 국정자문위원회는 9월 29일 여성과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한 파트와(fatwa)의 작성에 왕실 칙령으로 선발된 여성 이슬람 신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음.
- 이처럼 종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사회개혁 조치들이 거듭 단행됨에 따라, MbS 왕세자의 공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사회가 와하비즘에 기반한 근본주의적 이슬람 사회에서 ‘온건한 이슬람 사회’로 변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이 이슬람 고위 성직자 등 기존의 기득권 보수층은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일부 청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여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1966년 Faisal 국왕이 TV 방송을 허가하고 국영 TV 방송국이 설립되어 방송을 시작하자, 사람의 형상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TV 방송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쿠란의 계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방송국을 무장 공격했던 역사를 들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음.

IV. MbS 시대의 정치적 지각변동 : 권력 장악을 위한 숙청

1. “왕자의 난”(亂) : 11명의 왕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숙청

□ MbS 왕세자의 과격한 전권 장악 추진으로 왕실 내 갈등 증폭 및 정치적 불안 고조

○ Salman 국왕이 2017년 6월 21일 조카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를 폐위하고 MbS 부왕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MbS 왕세자가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감금하고 퇴위를 강요하였으며, Muhammad bin Nayef 왕자는 폐위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 동시에 가족과 함께 가택연금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짐.

— 표면상으로는 Muhammad bin Nayef 왕자가 기꺼이 물러났으며 왕실 대표자로 구성되는 충성위원회(Allegiance-Pledge Commission) 위원 34명 중 31명이 왕세자 교체에 찬성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Muhammad bin Nayef 왕자는 계속 저항하다 감금된 후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알려짐.

○ 대테러 전문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테러 정책을 총지휘해온 Muhammad bin Nayef 왕자의 폐위와 공직 배제에 대하여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로부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MbS 왕세자가 Salman 국왕을 등에 업고 강압으로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물러나게 한 사실이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 불안이 고조됨. 아울러 Salman 국왕이 조만간 MbS 왕세자에게 양위할 것이라는 추측이 국내외에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 MbS 왕세자 주도의 반부패위원회, 11월 4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11명의 왕자와 전·현직 장관 등을 체포·연금

○ Salman 국왕은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를 창설하고, MbS 왕세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음.

— 동 위원회는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음.

- 동 발표로부터 불과 수 시간 뒤에 반부패위원회는 최소 11명의 왕자들은 물론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명을 체포하여 수도 Riyadh의 Ritz Carlton 호텔에 연금하였음.
- 연금된 왕자들 중에는 억만장자이자 국제투자자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Al-Waleed bin Talal 왕자, 왕실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s) 장관이자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 그의 동생이자 前Riyadh 주지사인 Turki bin Abdullah 왕자 등이 포함되었음.
 - Fahd 前국왕의 막내아들인 Abdul Aziz bin Fahd 왕자가 체포 과정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며 저항하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가 무사히 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또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Asir 주 부지사(deputy governor)이자 사업가인 Mansour bin Muqrin 왕자가 Asir 주의 주도 Abha 근교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음.
 - Mansour bin Muqrin 왕자는 체포 위기에 처하자 헬리콥터로 탈출하다 격추되었다는 루머가 계속됨. 그가 Salman 국왕에 의해 왕세제(王世弟)에서 폐위된 Muqrin 왕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음.

2. 부패 청산의 이면은 MbS 왕세자의 경쟁자 및 반대세력 제거

□ 대규모 숙청의 실제 목적은 MbS 왕세자의 왕위계승을 위한 경쟁자 제거라는 관측이 지배적

- 체포·연금된 Mutaib bin Abdullah 왕자와 Turki bin Abdullah 왕자 형제는 선왕인 Abdullah 국왕의 아들들로, 특히 Mutaib bin Abdullah 왕자는 앞서 왕세자위에서 폐위되고 가택연금된 Muhammad bin Nayef 왕자와 더불어 MbS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임.
 - Salman 국왕은 Mutaib bin Abdullah 왕자 체포 수 시간 전에 그를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직에서 해임하였는데, 제3군단은 제1/2군단과 달리 국방장관인 MbS 왕세자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번의 체포·연금은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며, 진정한 목적은 MbS 왕세자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유력한 경쟁자인 왕자들과 그 동조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MbS 왕세자, 숙청으로 군부 권력 독점

-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전통적으로 ‘친형제 간이 아닌’ 몇 명의 왕자들이 군부 권력을 분점해 왔으나, 이미 국방장관(상비군 통할)을 겸하고 있는 MbS 왕세자는 금번 숙청을 통해 군부 권력을 독점함.
 - 내무장관(경찰·정보조직 통할)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테러 정책을 총지휘해온 Muhammad bin Nayef 왕자의 왕세자 폐위 및 숙청에 이어 국가수비대 장관(정예군 통할)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까지 제거하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보와 관련된 전권을 장악함.
- 한편, MbS 왕세자는 11월 23일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번 숙청에 대해 “2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부패척결 작업의 결과물”이라 주장하고 “구금된 인사 95%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재산 환수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이 부정축재로 만든 재산(최소 1,000억 달러)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New York Times와 Reuter 등의 1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Mutaib bin Abdullah 왕자는 최근 10억 달러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수용 가능한 타협안’에 합의하고 석방되었으나, 석방 후에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Sheikh Saud al-Mujib 검찰총장은 12월 5일 성명을 발표, 반부패위원회가 현재까지 부패 혐의 관련 계좌를 동결한 왕족·기업인·정치인은 총 376명으로 이중 32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159명이 아직 구금 중이라고 밝혔음.
 - 반부패위원회는 유죄를 인정하고 부정축재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데 동의하는 조사대상자는 사법당국에 사면을 권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조사대상자는 사법당국에 관련 증거를 넘겨 기소할 예정임.

3. MbS 왕세자, 개혁 추진과 더불어 왕실 내 숙청 계속 전망

□ MbS 왕세자의 개혁 추진에 젊은층은 지지, 보수층은 반발

- 현재 MbS 왕세자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은 보수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엄숙주의, 왕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심하게 편중된 부(富)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염증과 반감을 지닌 대부분의 젊은층으로부터는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MbS 왕세자의 개혁 추진은 단기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로서는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왕실 내 연장자들과 보수 이슬람 성직자들 및 기성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왕실로부터 기득권과 각종 특혜를 보장받고 있는 보수 이슬람 성직자들은 표면상으로는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성 인권 개선 등의 개혁 조치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MbS 왕세자, Faisal 국왕의 선례를 의식하여 숙청 계속 전망

○ 1964년 11월 무능한 이복 형인 Saud 국왕을 축출하고 즉위하여 근대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갈등을 빚다 1975년 3월 조카인 Faisal bin Musaid 왕자에게 암살당한 Faisal 국왕의 선례는 MbS 왕세자의 가장 위협한 적이 왕실 내부에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함.

— Faisal bin Musaid 왕자의 형이자 열렬한 와하비스트인 Khaled bin Musaid 왕자는 Faisal 국왕이 TV 방송을 허가한 데 반발하여 1966년 일단의 와하비스트들과 함께 TV 방송국에 무장 공격을 감행하다 사살되었음.⁶⁾

○ 따라서 MbS 왕세자는 왕위계승 후에도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왕자들 및 그 지지세력을 제거하는 숙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왕실 내 갈등과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됨.

V. MbS 시대의 외교적 격변 : 이란과의 전면 대결

1. 역대 숙적인 이란과의 관계는 개선 난망

□ 이란과는 2016년 1월 단교 후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갈등을 거듭하며 관계 악화 일로

○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팔레비 왕가 축출 이후 오랜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2005년 이란에서 강경 보수파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6) 당시 와하비 성직자들은 TV 방송이 인간의 모습을 비취주는 것이 '우상을 금지하고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에 담는 것을 금하는' 쿠란의 계율에 위배된다며 비난하였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공화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및 공화주의 세력이 걸프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2016년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로 자국의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자 이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당일 밤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습격하고, 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성지순례를 제외한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선언하여 양국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었음.
- 이후 외교관계 복원을 희망한다는 발언이 한때 양측 정부로부터 나왔으나, 저유가 해소를 위한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에 관한 의견 대립,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서 대립 등 모든 면에서 시종일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 이란은 정부(시아파)를 후원하고 있음. 반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수니파), 이란은 반군(시아파)을 후원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의 국왕인 MbS 왕세자는 이란과의 대화나 협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철저한 반이란 성향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에 단기간 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레바논 총리의 돌연한 사임 발표 및 번복으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 역내 불안정 고조

- 레바논의 Saad Al Hariri 총리는 1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이튿날인 11월 4일 “이란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Hezbollah)의 위협으로 레바논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전격 발표하였음.
 - 공교롭게도 이 날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위원회에 의한 대규모 숙청이 발생한 날로, 이란과 헤즈볼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al-Hariri 총리를 사실상 납치·감금하고 사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Al Hariri 총리는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임을 주장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두둔하였음.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레바논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귀국하라고 명령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음.

-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다가 11월 21일 귀국한 Al Hariri 총리는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Michel Aoun 대통령의 권고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사임을 유보하나, 헤즈볼라가 아랍 국가들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헤즈볼라 견제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음.
- 레바논은 종교 갈등으로 인한 15년 간의 내전 끝에 1990년 체결된 Taif 협약에 따라 대통령직을 마론파 기독교도(Maronite), 총리직을 수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을 시아파 무슬림이 맡는 권력 균점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정파가 아니라, Loyalty to the Resistance Bloc이라는 정당을 구성하여 2017년 11월 말 현재 레바논 의회에 13개 의석을 보유하고 내각에도 장관을 임명시키는 정치조직을 겸하고 있음.
- 레바논 총리의 사임 발표 및 반복 파동의 배후에는 레바논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MbS 왕세자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관측이 제기됨.

2. 카타르 단교 사태 역시 이란의 고립을 겨냥한 MbS의 공세

□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경제봉쇄 주도로 역내 갈등 고조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5월 23일의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계기로 6월 5일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 카타르 정부는 QNA 홈페이지가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어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을 발표,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6월 22일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 동 조건은 카타르의 주권을 다양한 방향에서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타르 정부는 동 조건의 수락을 거부하고 있음.

□ 단교 사태는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적 외교전략의 일환

- 단교 사태의 이면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적 외교전략이 존재하고 있음.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의 핵심은 Al-Jazeera의 폐쇄, 이란과의 관계 격하, 무슬림형제단의 추방 등임.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카타르의 위성 방송사 Al-Jazeera를 통해 자국 내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와 개혁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자적, 중립적, 다원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카타르가 South Pars 가스전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하여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나, 카타르는 중립 외교를 고수하며 무슬림형제단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11> 카타르의 지리적 위치: 사우디아라비아와 육상 국경선, 이란과 해상가스전 공유



-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과격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계속하고 이를 카타르가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였으며, 쿠웨이트와 오만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태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음.

- 일각에서는 단교 및 경제봉쇄의 진짜 목적은 MbS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Al-Jazeera를 응징하여 자신의 왕위계승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함.

3. 예멘 내전 개입 : 對이란 견제가 목적이나 인도적 위기 초래

□ 예멘 내전에의 적극적 개입, 민간인 희생을 양산하여 비판 자초

- 인접국인 예멘에서 Abdrabbuh Mansur Hadi 대통령이 이끄는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정부를 돕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GCC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예멘 내전에 개입, 국경 지대예의 지상군 파병 및 폭격기를 동원하여 예멘을 공습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아덴 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예멘을 시아파 반군이 지배할 경우, 숙적 이란에 의해 시리아(시아파 정부)-레바논(헤즈볼라 득세)-이란(시아파의 맹주)-예멘(시아파 득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형성되어 자국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장관을 겸임한 MbS 왕세자(개입 당시는 부왕세자)는 주요 외교·안보기관의 수장직을 맡은 다른 왕자들과 일절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습 결정을 내렸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이후 현재까지 예멘에서 1만 명 이상이 폭격과 교전으로 사망하고 3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콜레라가 창궐하여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
 - 2017년 11월 말 현재 예멘 인구의 70%인 약 2,000만 명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700만 명 이상은 전적으로 UN 구호식량에 의지하여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GCC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며 이의 차단을 명분으로 11월 6일 예멘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봉쇄, 식량·의약품 부족이 더욱 악화되었음.
 - UN의 거듭된 요구로 예멘의 수도 Sanaa의 공항 및 Hodeidah 항구와 Salef 항구에 대한 봉쇄는 11월 24일 해제되었으나,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주요 항구들에 대해서는 12월 12일 현재 봉쇄가 계속되고 있음.

VI. MbS 선장의 사우디號 :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불확실성 고조, 불안과 기대 교차

□ MbS 주도의 개혁의 성패는 “Saudi Vision 2030”에 필요한 재원과 추진동력 확보 및 보수파 통제 여부에 의해 좌우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젊은 국왕(40세 이전에 즉위할 전망)이 될 MbS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는 “Saudi Vision 2030”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경제개혁을 통한 산업다각화 달성과 석유의존도 저하, 사회개혁을 통한 온건 이슬람 국가로의 변화, 정치개혁을 통한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획득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기반을 보유한 현대 국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 따라서 “Saudi Vision 2030”의 실행계획 추진에 요구되는 재원, 그리고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의 확보가 MbS 주도의 “Saudi Vision 2030”이 지향하는 개혁의 성공의 관건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누적과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신규 조세 도입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Saudi Vision 2030”의 세부 추진계획의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Saudi Vision 2030”의 세부 추진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자질과 적극성은 계획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하는 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과 무사 안일주의의 타파 여부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Saudi Vision 2030”이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에 의한 산업다각화의 성공 여부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에도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는 ‘산유국의 산업다각화’의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 한편, 오랜 세월 동안 왕실의 후원 속에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는 기득권 세력인 와하비 성직자 집단 등 이슬람 근본주의 보수파는 최근의 사회개혁 추진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음.

—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kabir mufti(최고 종교지도자)인 Sheikh Abdul Aziz Al Asheikh는 “남녀 혼식을 조장하는 영화와 음악 콘서트는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들 보수파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진정시키느냐가 사회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임.

— 무프티(mufti, 샤리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자격을 지닌 법학자) 등 유력 성직자 집단은 왕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는 대신 왕실을 전폭 지지하는 관계에 있어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일부 근본주의 성직자 집단이 사회개혁에 반기를 들 우려가 있음.

□ 왕실 내 숙청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정치불안의 가능성 잠재

○ 이슬람 사회의 일부다처제로 인한 다자녀 출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일가(Al Saud 가문 출신)는 현재 약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중 직계 후손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일정 수준의 정치적 발언권을 지닌 주요 왕자들만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됨.

○ 이처럼 많은 수의 왕자들이 모두 MbS 왕세자에게 충성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왕실 내에서 특정 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합집산이 일어나 反MbS 세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함.

— 따라서 비록 MbS 왕세자가 “왕자의 난” 숙청을 통해 군부 권력을 독점하였음에도 그의 전권 장악에 대한 내부적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함.

○ 이로 인해 MbS 왕세자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기 위한 왕실 내 숙청은 향후에도 간헐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은 당분간 잠재될 것으로 분석됨.

□ 이란과의 대립 지속으로 역내 긴장 고조 우려

○ 현재 중동의 역내 분쟁 또는 갈등(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카타르 단교·경제봉쇄 사태 등)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은 모두 이란의 세력 확장과 ‘시아파 벨트’ 형성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며, MbS 왕세자가 이를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MbS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왕실 내에서 가장 열렬한 對이란 강경파이며, 이란과는 어떤 종류의 대화나 협상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레바논 Al Hariri 총리의 사퇴 선언 및 번복 파문도 레바논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MbS 왕세자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레바논이 예멘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리전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처럼 전방위적인 對이란 공세는 중동 지역의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양국 간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높여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이스라엘과의 밀약설 : 이란 견제를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 세계의 공공의 적’이자 이란과 뿌리 깊은 적대관계인 이스라엘과도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전통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음)와 오랜 적대 관계이며, 최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란의 최대의 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 AFP 통신은 10월 20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 MbS 왕세자가 9월 7일 이스라엘의 Tel Aviv를 극비 방문하여 Biny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등과 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0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AFP 통신의 보도를 강력 부인하였으나, MbS 왕세자는 그간 이란의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비공식적인 군사정보 교환과 정부 고위급 인사 회동이 빈번해졌으며, 이는 MbS 왕세자의 지시에 의한 결과라는 추측이 무성함.
 - 이스라엘군의 Gadi Eisenkot 참모총장은 지난 1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온라인 매체 Elaph과의 예외적인 인터뷰에서,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 이어 이스라엘의 Yuval Steinitz 에너지장관도 11월 19일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 간에 비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인하는 등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反이란 동맹의 형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New York Times는 12월 3일자 보도를 통해 11월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Mahmoud Abbas 수반이 극비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MbS 왕세자를 면담하였고, MbS 왕세자는 이스라엘에 지극히 편향된 평화협상안을 제시하며 수용을 요구했다고 전하였음.

○ 미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즉각 해당 보도를 부인하였으나,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2월 6일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돌발적인 선언⁷⁾을 발표하자 이슬람권 전체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선언적인 수준의 우려만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분석이 제기됨.

— 12월 10일 이집트 Cairo에서 개최된 아랍연맹 외무장관 긴급 회의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었으나, 정작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일절 결여된 무의미한 성명에 그쳤음.

□ 예멘 내전이 Saleh 前대통령 피살에 따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심화 우려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리전으로 비화된 예멘 내전은 Ali Abdullah Saleh 예멘 前대통령이 12월 4일 Sanaa에서 후티 반군에게 살해됨에 따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내전 종식을 바라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더욱 깊이 개입될 것으로 우려됨.

— 34년 간의 독재 끝에 2012년 2월 권좌에서 축출된 Saleh 前대통령은 내전이 발발하자 대립관계였던 후티 반군과 협력하여 Hadi 행정부를 공격해 오다 최근 후티 반군과 결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내전 종식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던 중 후티 반군에게 살해당하였음.

7)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본래 이 지역에 살아오던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쫓겨나고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UN 결의에 따라 예루살렘 서부(신시가지)는 이스라엘에, 동부(구시가지)는 요르단에 각각 귀속되었음. 이후 1967년 3월 발발한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아랍 연합군을 격파하고 동부까지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였으나, UN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도 Tel Aviv에 소재하고 있으나, Trump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내 지지세력(특히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 예멘 내전 개입으로 예상을 훨씬 넘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Saleh 前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한 내전 종식을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Saleh 前대통령의 피살로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내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내전의 장기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현재 32세의 젊은이인 MbS 왕세자가 경험 부족, 충동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예멘 내전에의 과도한 개입을 단행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MbS 왕세자의 국내외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멘 내전에의 개입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 적자 악화의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2016년 10월 8일 예멘의 수도 Sanaa에서 반군 인사의 부친상 장례식장을 폭격해 14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국가안보위원회(NSC) 성명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협력은 백지수표가 아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판한 바 있음.

□ 카타르 단교 사태의 추이는 MbS 왕세자의 위상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

○ 예멘 내전 개입에 이어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도 주도한 MbS 왕세자의 권력 기반 강화는 카타르 단교 사태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對카타르 단교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귀결될 경우, MbS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그로 인한 왕실 내 권력 암투를 촉발함으로써 국내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의 GCC 탈퇴 가능성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카타르가 GCC를 전격 탈퇴하고 이란, 터키와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타격이 될 것이며 MbS 왕세자의 국내외적 위상도 흔들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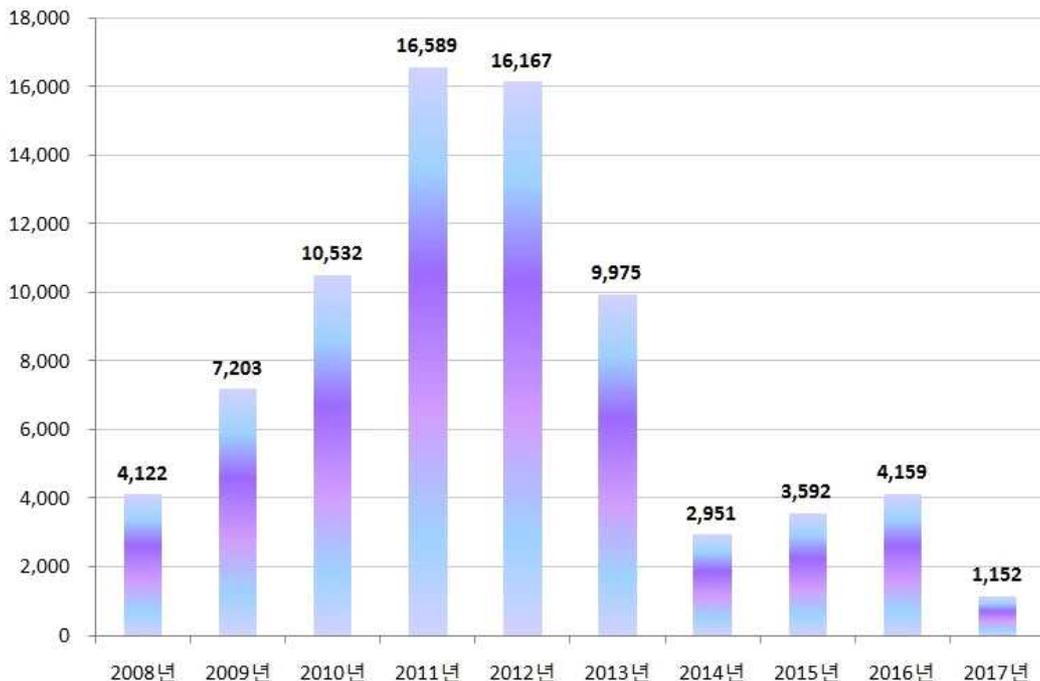
2. 당행 및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

□ 최근 우리 기업의 對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감소

- 2016년 말 우리 기업의 對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누계액은 1,380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전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누계총액(7,504.3억 달러)의 18.4%(전체 1위)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최근의 저유가 추세의 여파로 연간 수주액이 2013년 99.7억 달러에서 2014년 29.5억 달러로 급감한 이후 2015년 35.9억 달러, 2016년 41.6억 달러로 계속 부진하였음.
 -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심화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분야인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부문의 발주 감소와 정부 및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일정 조정으로 이어졌음.
 - 2017년에도 1~11월 중 수주액은 11.2억 달러로 전년동기(31.2억 달러) 대비 35.8% 수준에 그쳤음.

<그림 12> 최근 10년 간 우리 기업들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주실적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7년은 12월 15일까지의 실적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Saudi Vision 2030”의 추진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회 증가 기대

- “Saudi Vision 2030”의 세부 추진계획에 의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증가가 전망되며, 이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기회 증가로 이어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 진출 제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8~20년 중 PIF의 중점 추진 프로젝트인 Saudi GIGA Project는 엔터테인먼트 시티 건설(Qiddiya 프로젝트), 국제적 관광단지 건설(Red Sea 프로젝트) 및 첨단 미래도시 건설(NEOM 프로젝트)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구성됨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들의 수주 기회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상기 프로젝트들의 건물, 시설 하드웨어 부문은 물론 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주 및 관련 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프로젝트에 응찰하는 외국 기업에게 자금 조달 동반을 요구할 전망 : 당행의 역할 증대 예상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저유가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과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2016년부터 채권 발행에 나섰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10월 20일 사상 최초로 175억 달러 규모의 국채(미 달러화 표시)를 발행한 데 이어 금년 9월 27일 125억 달러 규모의 2차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 또한 금년 4~11월 6차례에 걸쳐 미 달러화 표시 90억 달러 및 리얄화 표시 536.8억 리얄(약 143.1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633억 리얄(약 435.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임.
- 그러나 Saudi Vision 2030의 다양한 실행계획의 추진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의 조달을 채권 발행에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자금 투입을 줄이고 응찰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동반을 요구할 전망이다.

- 이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전문 ECA인 당행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행은 “Saudi Vision 2030”의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왕자의 난” 후유증과 예멘 내전 등으로 인한 드러난 국내외적 리스크 증가에 주의 필요
 - “왕자의 난”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사업가들도 MbS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위원회에 의해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
 - 대우건설 매각에서 강력한 인수자 후보로 꼽혔던 사우디아라비아 Bin Laden Group(9.11 테러를 주도한 Osama bin Laden의 가문이 소유)의 회장이 반부패위원회에 의해 부정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과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파트너 선정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증가한 것임. 즉, 현지 파트너 기업의 소유주나 최고경영자가 MbS 왕세자의 ‘눈 밖에 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좌초될 가능성마저 있음.
 - 또한 예멘 내전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심화가 전망되며, 중동 전역에서 이란과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등 역내 불안정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가 우려됨.
 -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진출하는 건설기업들은 특정 프로젝트 수주에 앞서 사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참고자료 1>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역대 국왕

사진	이름	생몰(生沒)	통치기간	초대 국왕과의 관계	특기사항
	초대 Abdulaziz (Ibn Saud)	1876.11.26 ~1953.11.9 (76세)	1932.9.22. ~1953.11.9.	본인	공식 부인 22명 공식 아들 45명
	2대 Saud	1902.1.12 ~1969.2.23 (67세)	1953.11.9. ~1964.11.2.	둘째 아들	무능과 사치로 Faisal 왕에 의해 강제 퇴위
	3대 Faisal	1906.4 ~1975.3.25 (68세)	1964.11.2. ~1975.3.25.	셋째 아들	와하비즘 강화, 조카에 의해 암살됨
	4대 Khalid	1913.2.13 ~1982.6.13 (69세)	1975.3.25 ~1982.6.13	다섯째 아들	
	5대 Fahd	1921.3.16 ~2005.8.1 (84세)	1982.6.13 ~2005.8.1	아홉째 아들	"Sudairi Seven"* 중 첫째 아들
	6대 Abdullah	1924.8.1 ~2015.1.23 (90세)	2005.8.1 ~2015.1.23	열두째 아들	
	7대 Salman	1935.12.31 출생 (현재 81세)	2015.1.23 왕위 계승	스물다섯째 아들	"Sudairi Seven" 중 여섯째 아들

* 1960년작 미국 서부영화 “The Magnificent Seven”(황야의 7인)에서 유래한 별칭으로, Abdulaziz 왕의 8번째이자 가장 총애받은 부인인 Hussa bint Ahmed Al Sudairi(아라비아의 강력한 부족들 중 하나인 Sudairi 부족의 족장의 딸)가 낳은 7명의 왕자들을 지칭:
 1. Fahd (1921-2005) : 1982년 국왕으로 즉위, 2005년 서거
 2. Sultan (1929-2011) : 국방장관(1962-2011), 왕세제(2005-2011)
 3. Abdul Rahman (1931-2017) : 국방부 장관(1978-2011)
 4. Nayef (1934-2012) : 내무장관(1975-2012), 제1부총리 겸 왕세제(2011-2012)
 5. Turki (1934-2016) : 국방부 장관(1968-1978)
 6. Salman (1935-) : 2015년 국왕으로 즉위
 7. Ahmed (1942-) : 내무부 장관(1975-2012), 내무장관(2012)

<참고자료 2>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역대 왕세제(王世弟) 및 왕세자(王世子)*

사진	이름	생몰(生沒)	왕세제/왕세자 재위기간	비고	특기사항
	Saud*	1902.1.15 ~1969.2.23 (67세)	1933.5.11 ~1953.11.9	2대 국왕	초대 왕세자 (초대 Abdulaziz 국왕의 장남)
	Faisal	1906.4.14 ~1975.3.25 (68세)	1953.11.9 ~1964.11.2	3대 국왕	초대 왕세제
	Muhammad	1910.3.4 ~1988.11.25 (78세)	1964.11.2 ~1965.3.29	자진 퇴위	Khalid 국왕의 동복 형
	Khalid	1913.2.13 ~1982.6.13 (69세)	1965.3.29 ~1975.3.25	4대 국왕	
	Fahd	1921.3.16 ~2005.8.1 (84세)	1975.3.25 ~1982.6.13	5대 국왕	"Sudairi Seven" 중 첫째
	Abdullah	1924.8.1 ~2015.1.22 (90세)	1982.6.13 ~2005.8.01	6대 국왕	
	Sultan	1931.8.1 ~2011.10.22 (80세)	2005.8.01 ~2011.10.22	재위 중 사망	"Sudairi Seven" 중 둘째
	Nayef	1934.8.23 ~2012.6.16 (77세)	2011.10.29 ~2012.6.16	재위 중 사망	"Sudairi Seven" 중 넷째
	Salman	1935.12.31 (현재 81세)	2012.6.16 ~2015.1.23	7대 국왕 (현 국왕)	"Sudairi Seven" 중 여섯째
	Muqrin	1945.9.15 (현재 72세)	2015.1.23 ~2015.4.29	강제 퇴위	
	Muhammad bin Nayef*	1959.8.30 (현재 58세)	2015.4.29 ~2017.6.21	강제 퇴위	Nayef 前왕세제의 아들
	Muhammad bin Salman*	1985.8.31 (현재 32세)	2017.6.21 ~ 현재	현 왕세자	Salman 국왕의 아들

<참고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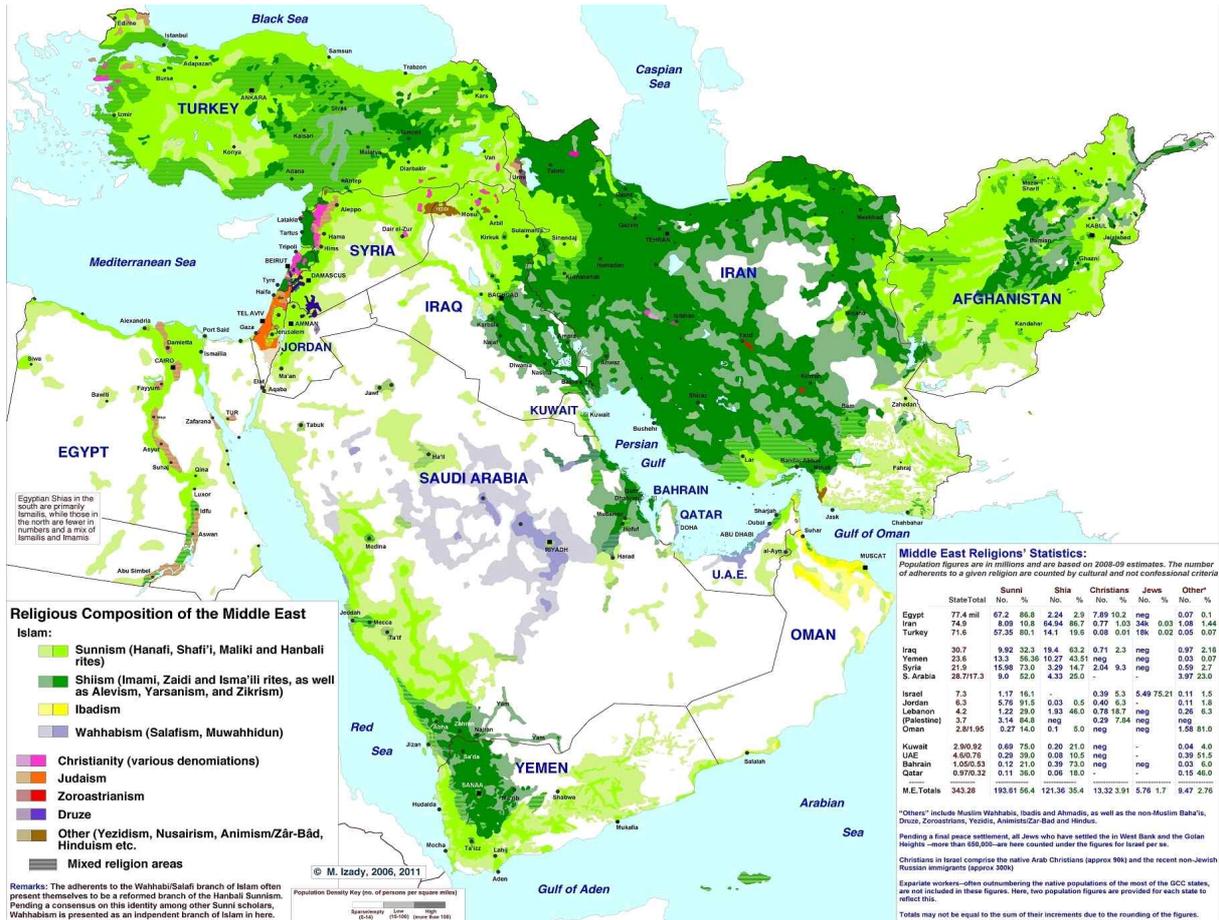
Salman 국왕의 가족관계

남자가 최대 4명의 공식 부인(합법적인 배우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alman 국왕은 3명의 공식 부인을 두었는데,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5남 1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셋째 부인과의 사이에 MbS 왕세자를 비롯한 6남을 두었음.

- 첫째 부인 Sultana bint Turki Al Sudairi(2011년 7월 사망) : Salman 국왕의 외사촌동생으로, 국왕의 외가인 Sudairi 가문 출신
 - 장남 Fahd 왕자(1955년생) : 2001년 7월 25일 심장질환으로 사망
 - 차남 Sultan 왕자(1956년생) : 1985년 6월 미국의 우주왕복선 Discovery호에 탑승하여 왕족으로서, 아랍인으로서, 무슬림으로서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인물이 되었으며, 현재 정부 산하 사우디 관광 및 국가유산 위원회(SCTH) 의장으로 재임 중
 - 3남 Ahmed 왕자(1958년생) : Fahd 왕자 사망 1년 만인 2002년 7월 22일 역시 심장질환으로 사망
 - 4남 Abdulaziz 왕자(1960년생) : 석유부 부장관(1995-2005년), 석유광물 자원부 차관(2005-2017년 4월)을 거쳐 현재 에너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
 - 5남 Faisal 왕자(1970년생) : 현재 Medinah 주 지사로 재직 중
- 둘째 부인 Sarah bint Faisal Al Subai'ai(이혼)와의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자녀인 Saud 왕자(1986년생)는 여러 자선단체의 의장으로 활동 중
- 셋째 부인 Fahda bint Falah bin Sultan Al Hathlyn : 현 왕비
 - MbS 왕자(1985년생) : 현 왕세자 겸 국방장관 겸 제1부총리
 - Turki 왕자(1987년생) : 2013.2월 ~ 2014.4월 Saudi Research and Marketing Group(SRMG) 회장으로 재직
 - Khalid 왕자(1988년생) : 현재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재직 중
 - Nayef 왕자, Bandar 왕자, Rakan 왕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참고자료 4>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종교 분포도



자료: Columbia Gulf Project 2000 (gulf2000.columbia.edu/maps.shtml)